

研究論文

# 공자는 『周易』의 「十翼」을 스스로 지었는가?

황 준 연\*

I. 들어가는 말	V. 맺는 말
II. 공자의 「十翼」 自作說 긍정의 근거	<참고문헌>
III. 공자와 『周易』의 관련성	<국문요약>
IV. 공자의 「十翼」 自作說 부정의 근거	

## I. 들어가는 말

외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생리적인 오감(五感)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고, 기억의 형태로 보존된다.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록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기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축적된다. 그리하여 축적된 기록은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데, 우리는 이처럼 체계적인 형식으로 남아있는 기록물을 ‘역사’라고 부른다. 지식은 대대로 전승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때로는 신화(神話)의 형태로 굳어지고, 사람들은 그 권위에 복종한다. 그리하여 한번 굳어진 신화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고는 지난 2,000년 동안 굳어진 하나의 인식, 그리하여 이제는 신화가 되어버린 지식에 회의를 표시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한 무리 독서인들의 노력을 추적한다. 그리하여 신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본 논

---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동양철학 전공(binario@chonbuk.ac.kr).

고에서 필자는 현존하는 문헌을 놓고 긍정과 부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얽혀있는 가닥을 정리하여, 하나의 결론으로 유도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그와 같은 노력이 한번 굳어진 인식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알려진 바와 같이 『周易』(혹은 『易經』)은 경문(經文)과 전문(傳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문’이란 『주역』의 괘사(卦辭)와 효사(爻辭)만을 말하며, 그것은 원래 점(占)치는 자들의 도구서(工具書), 즉 하나의 ‘매뉴얼’로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문’은 경문에 대한 해설서이고, 그것은 철학적 성격을 지니고 발전하였다. 『주역』 구성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경문이 먼저이고, 전문은 경문보다 후대에 나온 것이다.<sup>1)</sup>

그러므로 『주역』, 즉 『역경』은 경문과 전문을 더한 체계이다. 전문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易傳』을 들 수 있다. 『역전』은 『주역』의 괘사와 효사에 해설을 붙인 것인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十翼」을 가리킨다. 「십익」이란 문자 그대로 “열 개의 날개”로 『주역』의 경문에 날개를 붙인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것은 ① <단전象傳> 상, 하 ② <상전象傳> 상, 하 ③ <문언전文言傳> ④ <계사전繫辭傳> 상, 하 ⑤ <서괘전序卦傳> ⑥ <설괘전說卦傳> ⑦ <잡괘전雜卦傳>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십익」은 전통적으로 공자(孔子)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주역』의 학문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단순한 인물 분석의 차원이 아니라, 『주역』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본고는 정(正)의 측면에서 「십익」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밝혀내기 보다는, 부(負)의 측면에서 「십익」의 저자가 공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추(類推)해냄으로써, 주역학(周易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sup>2)</sup>

- 
- 1) 『주역』의 경문, 즉 괘사와 효사는 B.C.770년 이전의西周 시대에 제작된 것이고, 『易傳』 즉 「십익」은 B.C.221년 이후 秦·漢 시대에 저술된 것이다. 『주역』이 한 순간에 제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역전』도 한 시대, 한 인간에 의하여 저술된 것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역전』이 『주역』보다 후대에 창작되었다는 점이다. 『역전』 제작연대의 선후 문제는 다음의 글은 참조할 것. cf. 李鏡池, 『周易探源』(北京 中華書局, 1978), 301쪽.
  - 2) 『주역』의 역사를 發展의 측면에서 고찰한 先行 연구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현대의 ‘고거학과’의 공헌이 컸다.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는, “주역학의 발전”이란 『주역』 연구에 대한 補助的인 것임을 말한다. cf. 廖名春·康學偉·梁韋弦(저)/심경호(옮김), 『주역철학사』(예문서원, 1994), 제7장 현대의 역학, 제4절 현대의 고거학.

## II. 공자의 「十翼」 自作說 公정의 근거

지난 2,000년 동안 「십익」은 공자가 스스로 지은 것이라는 이른바 공자 ‘자작설(自作說)’이 지배적이었다. 그 점에 대하여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다.<sup>3)</sup> 왜 사람들이 「십익」을 공자가 스스로 지은 것으로 믿게 되었는가? 그 전거(典據)가 되는 기록으로 구구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사마천(司馬遷)의 『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의 기록과<sup>4)</sup> 반고(班固)의 『漢書』 예문지(藝文志)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하나씩 검토하기로 한다.

### 1. 사마천의 『史記』 공자세가

사마천은 『史記』공자세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孔子晚而喜易序彖繫象說卦文言讀易韋編三絕曰假我數年若是我於易則彬彬矣.<sup>5)</sup>

위 문장은 그 독법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한다.

#### 1) 문장 중의 ‘序’字를 동사로 새기는 경우이다.

공자는 말년에 『易』을 좋아하여 <단象>, <계사繫辭>, <상象>, <설괘說卦>, <문언文言>의 차례를 매겼다. 『역』을 읽어서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 말하기를 : “나에게 수년을 더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나는 『역』을 빛나게 할 것이다”(孔子晚而喜『易』, 序<象>, <繫>, <象>, <說卦>, <文言>. 讀『易』, 韋

3) 孔子 死後 약 1,5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십익」이 공자의 自作이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宋代 歐陽修(1007~1072)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양수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점을 놓고 논쟁이 일어났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후술)  
4) 司馬遷의 『史記』에는 孔子世家이외에, 孔子의 『易』에 대한 언급이 한 군데 더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그 사실을 지적하는 정도로 그친다. cf. 『史記』 권46, 田敬仲完世家 제17. “太史公曰: 盖孔子晚而喜易. 易之爲術, 幽明遠矣, 非通人達才孰能注意焉!”  
5) 司馬遷, 『史記』 권47, 孔子世家 제17(中華書局, 1964), 1937쪽.

編三絕。曰 假我數年, 若是. 我於易則彬彬矣).

이상의 경우는 ‘喜’字는 동사로서 다음에 오는 『易』 한 글자만을 목적어로 받고 있으며, ‘序’字는 동사로 다음에 오는 <단>, <계>, <상>, <설괘>, <문언>을 목적어로 받고 있다. 이 경우 ‘위편삼절(韋編三絕)’ 이하는 별개의 문장이다.

**2) 다음으로 ‘序’字를 명사로 새겨서 「십익」의 하나인 <서괘전序卦傳>으로 보는 경우이다.**

공자는 말년에 『易』의 <서序>, <단象>, <계사繫辭>, <상象>, <설괘說卦>, <문언文言>을 좋아하였다. 『역』을 읽어서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 말하기를 : “나에게 수 년을 더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나는 『역』을 빛나게 할 것이다.” (孔子晚而喜『易』, <序>, <象>, <繫>, <象>, <說卦>, <文言>. 讀『易』, 韋編三絕. 曰: 假我數年, 若是. 我於『易』則彬彬矣).

위 번역 문장은 ‘喜’字 한 글자만을 동사로 새기고, 나머지 『易』에서 <문언>까지를 모두 ‘喜’字의 목적어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序’字는 명사로서, 「십익」의 하나인 <서괘전>이 된다.<sup>6)</sup> 이 경우에도 ‘위편삼절’ 이하는 별개의 문장이다. 전자의 해석에 따르면, 공자의「십익」자작설이 설득력이 생기고, 후자에 따르면, 공자가 「십익」을 좋아한 것이지, 그것을 지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첫 번째의 독법을 놓고 또 다른 해석이 있다. 말하자면 ‘序’字가 어떻게 ‘作’字로 해석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웅십력(熊十力)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마천은 오로지 ‘序’ 한글자만을 사용하였고, ‘作’자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序’라는 것은 옛 성인(聖人)의 『易』을 지은 취지를 차례로 서술(敍述)한다는 것이지, 공자(孔子)가 창작하였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sup>7)</sup>

---

6) 孔穎達은 『周易正義』에서 ‘序’字를 “易序卦”라고 새겼다.  
7) 熊十力, 『乾坤衍』(臺灣學生書局, 民國 65年), 137쪽. “據馬遷祇用一序字. 不用作字. 序者序述 古聖作易之旨, 非謂孔子自有創作也.”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세 가지 해석이 모두 직접적으로 공자가 「십익」을 저술하였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공자가 「십익」을 저술하였다고 여겨진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당대(唐代)의 인물 공영달(孔穎達)이 『史記』의 이 구절을 놓고, 굳이 “夫子作十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sup>8)</sup> 그러나 원문의 ‘序’字가 孔氏에 와서 갑자기 ‘作’字로 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 2. 반고의 『漢書』 예문지

사마천에 의하여 다소 회의적(懷疑的)이던 표현은, 반고의 『漢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복희씨(宓戲氏)가 하늘을 우리러 상(象)을 관찰하였고, 땅을 내려다보아 법(法)을 삼았다. 조수(鳥獸)의 문채와 땅의 마땅함(宜)과 더불어,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취하였다. 그리하여 8괘가 시작되었으며,神明(神明)의 덕(德)이 통하였고, 만물의 정(情)이 무리를 지었다. 은(殷)·주(周) 교체 시기에 이르러, 주왕(紂王)이 임금 자리에 있어서, 하늘을 거스르고 물자를 낭비하였다(暴物). 문왕(文王)이 제후들과 더불어 천명(天命)을 받들고 道를 행함에 있어서, 천인(天人)의 占을 가히 얻어 효험을 볼 수 있었다. 이에 『易』의 육효(六爻)를 거듭 굿고(重), 上下篇을 지었다. 孔子는 <단象>, <상象>, <계사繫辭>, <문언文言>, <서괘序卦>의 종류 10편을 지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易』의 진리는 깊다고 한다. 사람은 세 성인(聖人)으로 갈리고(更), 세상은 삼고(三古)를 겪는다(歷).<sup>9)</sup>

여기에서 복희(宓戲), 일명 伏羲의 8괘설, 문왕(文王)의 64괘 중괘설(重卦說) 그

8) 司馬遷, 『史記』권47, 孔子世家 제17(中華書局, 1964), 1937쪽 註(-) 참조.

9) 班固, 『漢書』권30, 藝文志 제10(中華書局, 1975), 1704쪽. “至於殷, 周之際, 紂在上位, 逆天暴物, 文王以諸侯順命而行道, 天人之占可得而效, 於是重易六爻, 作上下篇. 孔氏爲之<象>, <象>, <繫辭>, <文言>, <序卦>之屬十篇. 故曰易道深矣. 人更三聖, 世歷三古.” 상기 문장에 있어서 韋昭의 註에 의하면, ‘三聖’은 곧 복희, 문왕, 공자를 말하며; ‘三古’는 복희의 上古, 문왕의 中古, 공자의 下古의 시대를 가리킨다.

리고 공자의 「십익」 자작설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 III. 공자와 『周易』의 관련성

#### 1. 『논어』 “五十以學『易』”

공자와 『주역』의 관련성 문제는 본고의 논리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공자의 『주역』에 대한 관심은 곧 그의 「십익」 자작설을 유추하는데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논어』 술이편의 이른바 “五十以學易” 어구(語句)는 공자와 『易』의 관련 문제에 있어서 대표적인 구절이다.<sup>10)</sup>

子曰加我數年五十以學易可以無大過矣.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독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첫째는 ‘易’字를 『易』으로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 독법은 다음과 같다.

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

이와 같은 독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석을 동반 한다.

- 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몇 년의 세월을 더하여 50의 나이에 『易』을 공부하면, 대과(大過)는 없을 것이다.
- ②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몇 년의 세월을 더하여 5와 10의 『易』을 공부하면, 대과는 없을 것이다.<sup>11)</sup>

---

10) 李學勤, “五十以學『易』考辨” cf. 李學勤, 『周易溯源』(成都 巴蜀出版社, 2006), 63쪽 이하.  
 11) “5와 10의 『易』을 공부한다.”라는 해석은 <河圖>, <洛書>와 관계가 있다. 이는 일종의 ‘數’ 풀이로 『易』을 이해하는 경우이다. 韓儒 金一夫(1826~1898)는 그의 저술 『正易』에서 “10과 5가 하나로 합하는 말씀”(十五一言)을 언급하였는데, 이것 또한 ‘5와 10의 『易』’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몇 년의 세월을 더하여 죽을 때까지 『易』을 공부하면, 대과는 없을 것이다.<sup>12)</sup>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해석은 ①을 채택하고, ②와 ③은 드문 경우이다. 이상의 세 가지 경우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던, 본고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다.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른바 『魯論』의 이문(異文)에 따른 문제이다.<sup>13)</sup>

子曰加我數年五十以學亦可以無大過矣.

『魯論』에서처럼 만일 ‘易’字가 ‘亦’字로 바뀌어 질 경우라면, 그 해석 내용이 『易』과 무관해지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화한다.

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 亦可以無大過矣(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몇 년의 세월을 더하여 50의 나이에 공부할 계속하면, 대과는 없을 것이다).

즉 만일 이와 같이 해석될 경우에, 孔子는 『易』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sup>14)</sup>

## 2. 마왕퇴 『帛書周易』 요편(要篇)

알려진 바와 같이, 마왕퇴 『帛書周易』<sup>15)</sup>은 역학(易學)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신기원(新紀元)을 이룬 자료이다. 그런데 『帛書周易』 요편(要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12) 이 해석은 ‘五十’을 ‘卒’字로 보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13) 李學勤, 『周易溯源』(巴蜀出版社, 2006), 74쪽 이하.

14) 그러므로 마왕퇴 『帛書』 要篇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독법의 설득력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그러나 1973년 마왕퇴 帛書 자료의 출토 이후, 이 같은 독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 이 용어는 학술상 일반화된 용어는 아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帛書周易”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서 『帛書周易』으로 표기한다.

孔子는 만년에 『易』을 좋아하여 거주 시에는 자리[蓍]에 두고, 외출할 때는 행낭[囊]에 가지고 다녔다. 자공(子貢)<sup>16)</sup>이 물었다. 선생님은 타일에 저희를 가르칠 때는, “덕행을 상실한 자가 신령(神靈)을 향하여 쫓리고(趨趕), 지혜와 원모(遠謀)에서 멀어진 자가 복서(卜筮)를 자주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에 미루어 행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어이하러 노년에 『역』을 좋아하십니까?…내(공자)가 『주역』을 점서(占筮)로 활용하는데 편만한 것은 아니다…『주역』이란 강건한 자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유약(柔弱)한 자는 굳센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수치스러운 자는 사기(詐欺)치는 것을 떨어버리게 하는 것이다.<sup>17)</sup>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공자가 말년에 『易』을 매우 좋아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로서 『帛書周易』 要篇이 갖는 높은 신빙성을 감안하면, 앞에서 언급한 “五十以學『易』”의 경우는, 고문 『魯論』의 문장처럼 ‘易’字가 ‘亦’字로 처리된 독법(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 亦可以無大過矣)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sup>18)</sup> 말을 바꾸면 공자는 『주역』과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 IV. 공자의 「十翼」 自作說 부정의 근거

##### 1. 구양수(歐陽修)의 회의(懷疑) : 『역동자문易童子問』

이상과 같은 공자의 『주역』에 대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십익」, 즉 『역전』의 저술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반고(班固) 『漢書』 예문지

16) 공자의 제자 端木賜(B.C.520~?)의 字이다. 子貢이라고도 한다.

17) “夫子老而好『易』, 居則在席, 行則在囊. 子貢曰: 夫子它日教此弟子曰: 德行亡者, 神靈之趨, 知謀遠者, 卜筮之藝. 賜以此爲然矣. 以此言取之, 賜縉行之爲也. 夫子何以老而好之乎?…予非安用也…夫『易』: 剛者使知懼, 柔者使知剛, 愚人爲而不忘, 慚人爲而去詐.” 이상 원문은 鄧球柏, 『帛書周易校釋』(長沙 湖南出版社, 1987)에서 인용하였음.

18) 『논어』 및 『帛書』와 관련된 “五十以學『易』” 문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cf. 廖名春, 『帛書『易傳』初探』(文史哲出版社, 民國 87年), 161쪽.



의 기록과, 공영달(孔穎達)의 주석을 제외하고는 어떤 곳에서도 공자가 『주역』 혹은 『역』을 제작(作)하였다는 표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맨 처음으로 또 공개적으로 공자의 『역전』 자작설에 회의를 표시하고 나온 인물은 구양수(歐陽修)이다.<sup>19)</sup> 공자의 시대로부터 무려 1,50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다. 그는 먼저 「십익」 중에서도 <계사전>의 공자 자작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사람이 물어 가로되: 지금 소위 <계사>는 과연 성인(聖人)의 책이 아닙니까?<sup>20)</sup>

여기에서 ‘聖人’은 공자를 가리키며, <계사전>은 공자의 저술이 아니냐는 의문의 표시이다. 구양수의 또 다른 의문은 왜 『주역』을 읽는데, ‘何謂’ 혹은 ‘子曰’ 같은 표현이 등장하며, <계사전>에 ‘聖人設卦’ 혹은 ‘繫辭’와 같은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이었다.<sup>21)</sup>

과연 『역』이 공자의 자작(自作)이라면, ‘子曰’ 혹은 ‘聖人設卦’와 같은 표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구양수의 의문은 깊어지고, 회의를 단계는 점점 높아져서 마침내 공자의 「십익」 자작설을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

동자(童子)가 물었다. “<계사>는 성인(聖人)의 저작이 아닙니까?” 대답하되: “어찌 <계사>만이 (공자의 作) 아니겠느냐? <문언>, <설괘>도 모두 공자의 저작이 아니다. 여러 가지 說이 섞여 있으니, 한 사람의 말도 아니다. 옛날 『주역』을 공부하는 자들이, 잡된 것을 취하여 그 강설의 자료로 삼았을 뿐 아니라, 또한 그 說이 일가(一家)만의 것도 아니었다. 그리하여 동이(同異)와 시비(是非)가 엇갈리고, 그 선택이 면밀하지 못하여 경전의 뜻을 해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였다.”<sup>22)</sup>

19) 여기에서 ‘맨 처음’이란 표현은 유리안 K. 스츄스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cf. Iulian K. Shchutskii, *Researches on the I Ching*, Translated by William L. MacDonald and Tsuyoshi Hasegawa(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 xiii.

20) 歐陽修, 『歐陽修全集』 권61, 居士外集 권11, 易或問[-]. (中華書局, 2001年), 879쪽. “或問曰: 今之所謂<繫辭>者, 果非聖人之書乎?”

21) 歐陽修, 『歐陽修全集』 권65, 居士外集 권15, 傳易圖序. 위의 책, 946쪽. “又讀今『周易』有‘何謂’, ‘子曰’者, 至其<繫辭>則又曰‘聖人設卦’, ‘繫辭焉’, 欲考其眞而莫可得.”

이와 같이 구양수는 공자의 「십익」 자작설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십익」의 저자는 누구란 말인가? 인용문에서는 하나의 대안(代案)이 제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다”(亦非一人之言也)라는 표현이다. 아무튼 구양수가 보기에, 「십익」을 공자가 저술하였다는 주장은 맹점(盲點)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구양수는 이처럼 공자의 「십익」 자작설에 회의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乾’卦 ‘元亨利貞’의 사덕설(四德說)에도 의문을 제기하였고, 더 나아가서 복희(伏羲) 8괘 설까지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23)</sup> 그러나 본고에서 필자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고자 한다.

## 2. 최술(崔述)의 반론 : 『수사고신록洙泗考信錄』

구양수의 회의(懷疑) 이후 조여담(趙汝談)과 요제항(姚際恒) 등이 공자의 「십익」 설에 대하여 논변을 제기하였으나, 그들의 저작이 모두 유실(流失)되어 내용을 알 수 없다.<sup>24)</sup> 청대 인물 최술(崔述)이 어두운 밤중에 다시 횃불을 들고 일어났다. 그는 『논어』 술이편 문제의 구절을 들고 입을 열었다.

子曰: 加(古本作「假」)我數年, 五十(二字古本作「卒」)以學『易』, 可以無大過矣.<sup>25)</sup>

이상 최술의 인용문을 보건데, 위 구절은 “내가 몇 년의 세월을 더하여 죽을 때까지 『易』을 공부하면, 대과(大過)는 없을 것이다”라고 새겨진다. 최술은 먼저 이 말이 등장한 때의 년대를 알 수 없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사마천의 『史記』와 반고의 『漢書』의 내용에 기재된 공자의 作『易傳』說에 대하여 논변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변작역전지설’(辨作易傳之說)이 그것이다.

22) 歐陽修, 『歐陽修全集』 권78, 易童子問 권3, 위의 책, 1119쪽. “童子問曰: <繫辭>非聖人之作乎? 曰: 何獨<繫辭>焉, <文言>, <說卦>而下, 皆非聖人之作, 而衆說淆亂, 亦非一人之言也. 昔之學<易>者, 雜取以資其講說, 而說非一家, 是以或同或異, 或是或非, 其擇而不精, 至使害經而惑世也.”

23) 歐陽修, 위의 책, 1120~1122쪽 참조.

24) 李鏡池, 앞의 책, 295쪽.

25) 崔述, 『洙泗考信錄』(啓聖圖書公司, 民國 61年), 38쪽.

『世家』에서 말하기를, “공자가 만년에 『易』을 좋아하였고, <단전>, <계사전>, <상전>, <설괘전>, <문언전>을 서술하였다”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반고(班固) 이후 여러 유자(儒者)들이 모두 『易傳』을 공자의 소작(所作)으로 말하였다. 당(唐)·송(宋) 때에 이르러서도 모두 그 말을 믿었다. 나는 『春秋』는 공자의 소작(所作)으로 그 문장이 근엄하고 간명(簡明), 질박(質朴)한 것이 『堯典』 우공(禹貢) 上下와 짝이 된다고 생각한다. 『논어』는 후인의 기록으로, 그 문장이 점점 격이 떨어진다. 만일 『易傳』이 과연 공자의 소작이라면 마땅히 『춘추』와 『논어』 사이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번거롭고, 그 문장이 『左傳』, 『戴記』와 유사하고, 『논어』보다 더욱 떨어진 것이 심하다. 이 어인 까닭인가? <계사전>, <문언전>에 간혹 ‘子曰’을 붙이기도 하고, 붙이지 않기도 하는데; 만일 『역전』이 과연 공자의 소작이라면, 스스로 ‘子曰’을 붙이지 않음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子曰’字는 후인이 덧붙인 것인데, 이 또한 붙이지 않았어야 하지 않겠는가...이렇게 볼 때에, 『易傳』은 필히 공자의 소작이 아니고, 또한 한 사람의 작품도 필히 아닐 것이다. 26)

최술은 이처럼 의심과 회의(懷疑)의 차원을 넘어서서 변박(辨駁)의 단계까지 이르러 있다. 그것도 단순한 변박이 아니라, 여러 경전의 문장의 경향을 들어서, 「십익」이 공자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술의 변박을 놓고 볼 때에, 그 검증성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문 방법에 의하여 과학적 검증 원리를 도입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자.

### 3. 곽말약(郭沫若)의 부정 : 『주역적구성시대周易의構成時代』<sup>27)</sup>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이 출토(出土)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검증 원리가 도입되었다. 이제 단순히 과거의 성인(聖人)을 칭송하고, 미화(美化)할 수 없는 사정이 도래한 것이다. ‘의고’(疑古)의 학풍이 불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변화의 추세와 관계가 깊다. 그리고 그 학풍을 촉발 시킨 배경에는 일찍이 접할 수

26) 崔述, 위의 책, 38~39쪽.

27) 郭沫若(1892~1978)의 저술 이름. 필자가 참고한 서적은 孔德研究所叢刊之二로 프랑스語 역본이 함께 있는 民國 29年 商務印書館 출판본이다. 같은 내용이 그의 저술 『青銅時代』(羣益出版社, 1947)에는 “周易之制作時代”라는 이름으로 게재되어 있다.

없었던 자료의 출토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899년 이후 갑골문(甲骨文)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사람들은 상대(商代), 주대(周代) 청동문의 출토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과거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다. 과거가 새롭게 다시 탄생하고 있었고, 광말약은 그와 같은 시대의 중심에 서서 있었던 사람이다.

광말약은 그의 저술 『周易의構成時代』 서두에서 복희(伏羲), 문왕(文王), 공자(孔子)의 이른바 ‘삼위일체설’을 부정하고 나온다. 그는 복희를 전설적인 인물로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고, 문왕은 64괘를 제작할 정도의 문화 수준이 높은 인물은 아니었다고 규정한다.<sup>28)</sup>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공(周公)의 효사(爻辭) 제작 설도 부정한다.<sup>29)</sup>

문제는 공자인데, 그는 『논어』 “五十以學『易』” 구절을 놓고 ‘易’자가 본래 ‘亦’자가 아닌지를 의심한다. 그리고 그는 공자의 적전(嫡傳) 제자인 자사(子思)와 또 그의 제자인 맹자(孟子)가 왜 『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계사전>의 ‘子曰’ 문제를 들고 나온다.

<계사전>에 있어서 과연 ‘子曰’이 여러 차례 나온다. ‘子’라는 글자가 공자에 한정되지 않으면 모를까, 만일 공자를 가리킨다면, 이 또한 후인의 가탁(假託)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마치 고문(古文) 『논어』의 일항(一項)인 ‘亦’자를 ‘易’자로 바꾸어 놓은 것과 같다.<sup>30)</sup>

광씨의 이와 같은 주장을 놓고 볼 때에, 『논어』 “五十以學『易』” 구절에 관한 한, 그의 지적은 감정적인 것이고,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자사(子思)와 맹자(孟子)가 『역』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고 말한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

광말약은 결국 공자가 『역』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sup>31)</sup> 그에 의

28) 郭沫若, 『周易의構成時代』(商務印書館, 民國 29年), 11쪽.

29) 위의 책, 16쪽.

30) 위의 책 19쪽.

31) 郭氏가 말한 이 경우의 『易』은 『易傳』, 즉 「십익」을 가리킨다. 郭氏가 세상과 작별한 해는 1978년인데, 마왕퇴 漢墓 『帛書周易』의 내용이 정리되어 세상에 발표된 것은 1980년대의 일이다. 더구나 『帛書』 要篇의 해석문이 陳松長, 廖名春에 의해서 세상에 선보인 것은 1993년의 일이므로, 광씨는 『백서』 요편을 접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廖名春은 『백서』 요편의 기록을 들어서, 공자

하면, 「십익」은 공자의 제작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설괘전>, <서괘전> 그리고 <잡괘전>은 한대(漢代) 선제(宣帝) 때(재위 B.C. 73~B.C. 49)에 출현한 것이다.<sup>32)</sup> 또한 그는 <상전>은 <단전>보다 나중에 나왔으며, 제(齊) 나라와 노(魯) 나라의 유자(儒者)의 손에 의하여 탄생하였다는 의견에 동의한다.<sup>33)</sup> 그리고 곽씨는 『荀子』 대략편(大略篇)과 「십익」중의 <단전> 하편을 비교하여, 『역전』이 순자(荀子)의 문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였다.<sup>34)</sup>

#### 4. 이경지(李鏡池)의 부정 : 『주역탐원周易探源』

곽말약의 주장은 매우 충격적이었지만,<sup>35)</sup> 검증에 필요한 증거(典據)와 논리의 전개에 있어서 취약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는 (앞의 각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백서』 요편을 접하지 못하였고, 그 점에 있어서 자료 인용의 측면에서도 취약하였다. 그러나 이경지(李鏡池)에 이르러서 논의는 전혀 다른 경지로 들어섰다.

이경지도 『논어』 “五十以學『易』”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 독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통행본 『논어』의 독법, 즉 “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몇 년의 세월을 더하여 50의 나이에 『易』을 공부하면, 대과는 없을 것이다)가 그것이고, 다음으로 『魯論』의 독법, 즉 “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 亦可以無大過矣”(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몇 년의 세월을 더하여 50의 나이에 공부할 계속하면, 대과는 없을 것이다)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경지는 곽말약과는 달리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여, 여기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경지는 그러나 맹자가 공자를 사숙(私淑)하였고, 그를 가리켜 ‘聖之時者也’라

와 『易』이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은 완전히 錯誤라고 말하고 있다. cf. 廖名春, 『帛書·易傳·初探』(文史哲出版社, 民國 87年), 162쪽.

32) 곽말약의 이와 같은 주장은 『論衡』 正說을 근거로 한 것이다. 郭沫若, 앞의 책, 34쪽.

33) 이 주장은 李鏡池의 설이다. 李鏡池, 앞의 책, 38쪽.

34) 위의 책, 50쪽 이하.

35) 郭氏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주역』의 作者는 馯臂 子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비 자홍은 楚나라 사람으로, 商瞿로부터 『주역』을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그에 관한 사적이 『史記』 仲尼弟子列傳과 『漢書』 儒林傳에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곽씨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cf. 郭沫若, 앞의 책, 28쪽.

고까지 하였고, 또한 공자가 『春秋』를 짓자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고 지적하였다.<sup>36)</sup> 그러면서 그와 같은 맹자가 『주역』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말하자면 공자가 평소 『주역』에 대하여 자사(子思)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자사는 또한 그 일을 맹자 자신에게 말하지 않을 리 없었다는 것이다.

이씨(李氏)는 공자 본인의 말대로, “述而不作”<sup>37)</sup>이라고 하여, 자기 말로는 ‘不作’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후인들은 한사코 공자가 ‘作’하였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하여 물었다. 이경지는 구양수(歐陽修)가 『역전』이 공자의 저술이 아니라는 데 대하여 회의(懷疑)하였지만, 그것은 <계사전>에 관한 내용일 뿐이며, 구씨(歐氏)는 <단전>과 <상전>에 대해서는 회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sup>38)</sup> 그리고 이경지는 『역전』은 본래 전국(戰國) 시대부터 서한(西漢) 말기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작성되었다고 보았다.

### 1) 『논어』와 『역전』에 나타난 ‘天’ 개념의 차이

이경지의 중요한 업적은 『역전』의 형식 문제가 아니라, 『논어』에 나타난 사상과 『역전』에 보이는 사상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즉 그는 『논어』에 보이는 공자의 ‘天’ 개념은 이른바 ‘주재지천’(主宰之天)인데, 『역전』 중의 <단전>과 <상전>에 나타난 ‘天’ 관념은 ‘의리지천’(義理之天)으로 주장하는 사상 계통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밝혔다.<sup>39)</sup> 그는 이렇게 말한다.

『논어』에 기록된 공자의 天에 대한 관념은 ‘主宰之天’이다. 그러나 『역』의 <단전>과 <상전>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석하여 그것이 한 사람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sup>40)</sup>

이경지는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 의해서 저술된 책이라면, 그 사상 계통이 같아야

36) 李鏡池, 앞의 책, 293쪽.

37) 『논어』 술이편.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38) 李鏡池, 앞의 책 295쪽.

39) 위의 책, 296~297쪽.

40) 위의 책, 297쪽.

마땅한 일인데, 『논어』와 『역전』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였다.

**2) 『역전』의 제작 년도에 대한 추측**

다음으로 이경지는 『역전』의 제작 년도에 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사실상 영원히 정답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래도 공자에게 『역전』의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41)</sup> 그는 결론적으로 『역전』 7종, 도합 10편의—그래서 「십익」이다.— 문장을 다음과 같이 3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제1조 <단전> 및 <상전> — 진(秦)·한(漢) 시대 제노(齊魯)의 유자들에 의해서 제작됨.
- 제2조 <계사전> 및 <문언전> — 사마천 시대 이후 한 대(漢代) 소제(昭帝), 선제(宣帝) 사이.
- 제3조 <설괘전>, <서괘전> 및 <잡괘전> — 만기(晩期)의 작품. 한(漢) 소제(昭帝), 선제(宣帝) 이후.<sup>42)</sup>

이상의 결론을 고려할 때에, 『역전』의 전부가 공자 시대로부터 한참 훗날 유자들에 의하여 탄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여기에서는 결론만 언급하고, 각론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3) 『역전』 중 <상전>에 나타난 사상 계통**

이경지에 이르러서 『역전』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분석되고, 공자의 「십익」 자작설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 그는 『역전』 중의 <상전>을 축자적(逐字的)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것이 공자 이후 유가의 손에 의하여 제작되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단계에까지 진입하였다. 그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상전>의 작자가 유가의 철학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自強不息(乾괘), 厚德載物(坤괘), 慎言語節飲食(頤괘), 非禮弗履(大壯괘), 反身修德(蹇괘), 懲忿窒欲(損괘), 見善則遷有過則改(益), 朋友講習(兌괘)<sup>43)</sup>

41) 위의 책, 300쪽.  
42) 위의 책, 301쪽.

그런데 <상전>의 내용만이 유가적 색채를 지닌 것은 아니다. <단전> 또한 그렇다. 다만 <단전>의 작자는 순수 유가라기보다는 ‘無爲主意’의 도가 사상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sup>44)</sup> 이경지의 이와 같은 고증은 이전 시대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이지적(理智的) 성격과 합리성을 모두 지녔다. 그 점에 있어서 그의 고증 방법은 매우 과학적이었다. 그는 사실상 『역전』의 형식(외부적 성질)과, 내용(내부적 성질)을 모두 검토함으로써, 하나의 대상(object)으로서의 『주역』에 대한 내부적 이해를 돈독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45)</sup>

### 5. 전목(錢穆)의 부정 : “論「十翼」非孔子作”

문제의 검증 방법에 있어서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방법을 시도한 이경지(李鏡池)의 학문적 태도는 현대의 학자인 전목(錢穆)의 경우에 유감없이 들어났다. 전씨(錢氏)는 “이전의 사람들은 「십익」이 공자가 저작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나는 10가지 사항을 들어서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sup>46)</sup>라는 말을 서두로 하여 「십익」이 공자의 작품이 결코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다(여기서는 錢氏의 10가지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고, 다음에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 ① 진조(晉朝)에 하남(河南) 급현(汲郡) — 현 하남성 신향(新鄉) 위희시(衛輝市) — 위(魏) 양왕(襄王)의 옛 무덤에서 다량의 책을 발굴하였는데, 그 중에 『易經』 양편이 들어있다.<sup>47)</sup> 이 『역경』은 현재의 『주역』처럼 上下 양편으로 되어 있으나, 「십익」은 없다. 우리는 위(魏) 문후(文侯; 재위 B.C.

43) 이와 같은 列舉 사항은 李鏡池의 32항목 중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 표현 내용은 대부분 儒家的 사상을 담고 있다.

44) 李鏡池, 앞의 책, 310쪽.

45) “어떤 대상(Gegenstand; object)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외적 속성(Eigenschaften; properties)들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부적 속성들은 모두 잘 이해하여야 한다”라는 L.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은 이 경우에 的實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트락타투스』 2.01231. L.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lated by D. F. Pears and B. F. McGuinness(Routledge & Kegan Paul, Reprinted 2002), p. 6. cf. 한글번역본 이영철(유희), 『논리: 철학 논고』(책세상, 2006), 21쪽.

46) 顧頌剛(편저), 『古史辨』 제3책(上海古籍出版社, 1982), 89쪽 이하.

47) 이들 고서를 ‘汲冢古文’ 혹은 ‘汲冢書’라고 부른다(필자 주).



- 446~B.C.443)가 유학을 숭상하여 공자의 제자인 자하(子夏)를 스승으로 만들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공자의 「십익」을 숭상하였을 터인데, 왜 위충(衛冢)<sup>48)</sup> 『역경』은 「십익」을 신지 않고 양편으로만 그쳤을까?
- ② 『左傳』 노(魯) 양공(襄公) 9년조에 노(魯) 목강(穆姜)이 원형이정(元亨利貞)의 네가지 德을 논하고 있는데, <문언전>의 처음과 같다. 문장의 세력으로 보아서, 『주역』<sup>49)</sup>이 『좌전』을 베낀 것이고, 『좌전』이 『주역』을 베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 ③ 『논어』에 “曾子曰, 君子思不出其位”라고 하였는데, 현재의 간괘(艮卦) <象傳>에도 이 말이 있다. 과연 공자가 「십익」을 지었다면, 『논어』를 기재한 인물이 잘못하여 “증자왈”이라고 하였겠는가?
- ④ 『계사전』 중에 자주 “子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공자의 수필(手筆)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 ⑤ 『史記』 자서(自序)에서 <계사전>을 인용하여 『易大傳』을 칭하면서, 경(經)을 말하지 않고, 또 공자의 말(語)이라고 하지 않았다.
- ⑥ 『史記』에서 황제(黃帝)를 가리켜 말하기를, “백가(百家)가 황제(黃帝)를 말하면서, 그 글(文)이 우아하거나 순종적[雅馴]이지 않으니, 선비들이 어렵게 생각했다”라고 하였고, 또한 “古文을 떠나지 않은 자가 이와 같다”(不離古文者近是)라고 하였다. <伯夷傳>을 기술하면서, “儒者載籍極博, 猶考信於六藝”라고 하였다. 허유(許由), 무광(務光), 태사공(太史公)이 기산(岐山)에 올랐다고 하고, 다만 공자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았다. 태사공이 살아 있을 적에, 이미 <계사전>이 공자의 작품으로 여겨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 ⑦ 『논어』에는 공자의 학역(學易) 이야기가 없다. “加我數年五十以學易可以無大過矣” 한 조항이 있을 뿐인데, 『魯論』에 의하면 ‘易’字는 마땅히 ‘亦’字로 보아야 한다. “五十學易”은 일종의 견강부회이다.
- ⑧ 『孟子』에서 『詩』와 『書』를 언급하고, 『易』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의 <계사전>에 있는 “繼之者善, 成之者性”의 구절도, 맹자가 성선(性善)을 이야기 하면서 인용하지 않았다. 금본 『荀子』에서 인용된 『易』의 몇 편도 믿을 수 없다.
- ⑨ 진(秦) 시황제 분서(焚書) 때에 『역경』은 복무서(卜筮書)로 여겨서 태우지

48) ‘衛冢’은 ‘汲冢’의 다른 이름이다(필자 주).

49) 이 경우 錢氏가 사용한 『주역』은 『역전』 중의 <문언전>을 뜻한다(필자주).

않았다. 이후 유생이 참고할 만한 책이 없어서, 『역경』을 학문의 길잡이로 여겨 한 대(漢代) 초년에 역학(易學)이 성행하는 원인이 되었다. 만일 공자가 「십익」을 지었다면, 분서(焚書) 때에 유가의 경전을 왜 태우지 않았겠는가?

⑩ 『논어』와 『역』50의 사상이 다르다.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期一) 道** : 『논어』의 道는 인류 행위의 일종 가치 품사(品詞)인데, 대개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 합리적 행위—‘君子之道’, ‘父之道’ ㉡ 행위의 이법(理法)으로 추상적 의사—‘志於道’, ‘朝聞道’ ㉢ 사회풍속 국가 정치의 이법—‘文武之道’, ‘天下有道.’ 그러나 <계사전>의 道는 『논어』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 추상(抽象) 독립의 한 물건—‘一陰一陽之謂道’, ‘形而上者謂之道’ 이 경우의 道는 老子 『道德經』의 ‘有物渾成, 先天地生, 吾不知其名, 字之曰道’의 경우와 부합한다. ㉤ 道字가 품고 있는 뜻이 천지간의 각종 이상(異象)을 포함한다. ‘乾道’, ‘坤道’, ‘晝夜之道’. 이는 『논어』와 다르다.

**(其二) 天** : 『논어』의 天은 인격적이다.—‘天生德於予’, ‘天喪予’, ‘獲罪於天’ 등. <계사전>의 天은 천지(天地)를 나란히 열거하여 자연계의 법상(法象)을 가리킨다.—‘天尊地卑’, ‘易與天地準’

**(其三) 鬼神** : 『논어』의 鬼神은 의지(意志)가 있고 인격적이다.—‘非其鬼而祭之, 諂也’, ‘祭神如神在’, ‘敬鬼神而遠之.’ 한편 <계사전>의 鬼神은 신비적(神祕的)이고, 유기적(惟氣的)이다. 유물론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옛날 사람들의 소박한 미신적 색채가 있다.—‘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精氣爲物, 遊魂爲變, 是故知鬼神之情狀’ <계사전>의 ‘神’字는 그 어의(語義)가 노장(老莊)의 ‘자연’(自然)과 비슷하다. 다시 결론을 총괄하면, <계사전>의 사상은 『논어』에서는 멀고, 노장의 그것과 가깝다.<sup>51)</sup>

전목(錢穆)의 이와 같은 10가지 열거는 사실상 그 이전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고 자신의 견해를 붙인 것이다. 당연히 몇 가지 사항은 전씨(錢氏) 이전의 학자들의 견해와 겹치고, 나머지 몇 가지 사항은 전씨(錢氏)의 독자적인 해석의 결과라고 하겠다.<sup>52)</sup>

50) 여기서는 <계사전>의 뜻이다(필자 주).

51) 顧頡剛(편자), 앞의 책, 89-91쪽.

52) 錢穆(1895-1990)은 현대인이고, ‘疑古風’을 극복하려고 자료를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孔子와

## V. 맺는 말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易傳』 곧 「십익」은 공자의 자작서(自作書)로 여겨져 왔다.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자료들이 출토하였으며, 학문 방법이 달라진 금세기에도 강유위(康有爲)와 같은 학자마저 그 점을 인정하였으니,<sup>53)</sup> 여타 학자들은 말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전거(典據)를 근거로 필자는 공자가 『역전』 즉 「십익」을 저술한 일이 없었다고 결론을 짓는다. 필자 나름대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결론에 기림 한다.

- [1] 공자 「십익」 자작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마천의 『史記』 공자세가와 반고의 『漢書』 예문지의 기록은 생각보다 영성하다. 사마씨(司馬氏)는 결코 ‘作’이라고 표현한 일이 없다. 그리고 반씨(班氏)의 표현은 믿을 수 없다. 즉 이들 자료의 신빙성이 매우 적다.
- [2] 맹자가 공자의 『주역』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생전에 자사(子思)로부터 공자의 『역』에 관하여 들은 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맹씨(孟氏)처럼 말이 많은 사람이 여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겠는가?
- [3] 『논어』의 사상과 『역전』의 사상 차이는, 이 책들이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방증(傍證)이라고 할 수 있다.
- [4] 『논어』 “五十以學『易』”의 해석 문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통행본의 독법,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와, 『魯論』의 독법, “加我數年, 五十以學, 亦可以無大過矣”는 어느 편이 옳은지 증명할 수 없다.<sup>54)</sup>
- [5] 이상 [2]항의 내용과 [4]항의 두 번째 독법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學『易』에 대한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자가 비록 「십

『易』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끝내 고치지 않았다. cf. 錢穆, 『國學概論』(上海 商務印書館, 1931); 『先秦諸子系年』(上海 商務印書館, 1931); 『孔子傳』(北京 三聯書店, 2002).

53) 康有爲는 오히려 『주역』의 폐사 및 효사까지도 孔子의 所作이라고 주장하였다. cf. 康有爲, 『新學僞經考』 권3; 『孔子改制考』 권10.

54) 이 문제에 관한 가장 자세한 검토는 李學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cf. 李學勤, 『周易溯源』(巴蜀出版社, 2006), 63쪽 제5절 “五十以學『易』考辨”.

익』을 스스로 저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자 자신의 『易』에 대한 관심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마왕퇴 『帛書周易』 요편(要篇)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그가 만년에 『역』에 대하여 관심이 깊었기 때문이다. 물론 『역』에 대한 관심이 곧 『역전』에 대한 저술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공자의 시대는 B.C.500년경인데, 무려 1,500년의 장기간 동안 사람들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史記』 공자세가와 『漢書』 예문지의 기록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송대 구양수(歐陽修)가 이 문제를 놓고 회의(懷疑)하였을 때, 회의(會議)를 열어서 공론화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을 볼 수 없다. 무릇 한 집단의 기억력은 선택적인 것인데, 유가 집단의 성인(聖人)에 대한 무의식의 존경심이 집단 최면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과거를 미화(美化)시키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공자 시대 이후의 유자들은 『易傳』에 대한 향수를 모두 공자 한 사람에게 돌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공자를 존경하는 문체와 공자가 저술하지도 않은 책을 저술하였다고 믿는 태도는 전혀 다르다. 학문은 종교적 신앙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진리를 위하여 성인의 작역설(作易說)을 의심하는 일이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 없다. 성인을 위하여 진리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차라리 성현(聖賢)을 비판할지언정, 진리 자체를 욕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다는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과연 진리는 무엇일까?

## 참고문헌

- 李鏡池, 『周易探源』. 北京 中華書局, 1978.  
 司馬遷, 『史記』권47, 孔子世家. 北京 中華書局, 1964.  
 熊十力, 『乾坤衍』. 臺灣學生書局, 民國 65年.  
 班固, 『漢書』권30, 藝文志. 北京 中華書局, 1975.  
 李學勤, 『周易溯源』. 成都 巴蜀出版社, 2006.  
 鄧球柏, 『帛書周易校釋』. 長沙 湖南出版社, 1987.  
 廖名春, 『帛書·易傳·初探』. 文史哲出版社, 民國 87年.

- 歐陽修, 『歐陽修全集』 권61, 居士外集 권11, 易或問[一]. 中華書局, 2001.
- 崔述, 『洙泗考信錄』. 臺北 啓聖圖書公司, 民國 61年.
- 郭沫若, 『周易的構成時代』. 孔德研究所叢刊之二, 商務印書館, 民國 29年.
- 郭沫若, 『青銅時代』. 羣益出版社, 1947.
- 顧頡剛(편저), 『古史辨』 제3책. 上海古籍出版社, 1982.
- 錢穆, 『國學概論』. 上海 商務印書館, 1931.
- 錢穆, 『先秦諸子系年』. 上海 商務印書館, 1931.
- 錢穆, 『孔子傳』. 北京 三聯書店, 2002.
- 康有爲, 『新學偽經考』 권3, 『孔子改制考』 권10.
- 廖名春·康學偉·梁韋弦(저)/심경호(옮김),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 Julian K. Shchutskii, *Researches on the I Ching*. Translated by William L. MacDonald and Tsuyoshi Hasegaw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L.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lated by D. F. Pears and B. F. McGuinness, Routledge & Kegan Paul, 1974.

### 국문 요약

알려진 바와 같이 『주역』은 경문(經文)과 전문(傳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의 구성 요소로서 『易傳』이 있다. 『역전』은 『주역』의 괘사와 효사에 해설을 붙인 것인데, 다른 표현으로 「십익」이라고 한다. 그런데 「십익」은 지난 2,000년 동안 공자의 ‘자작설’(自作說)이 지배적이었다. 사람들이 「십익」을 공자가 스스로 지은 것으로 믿게된 전거로서 사마천(司馬遷)의 『史記』 공자세가와, 반고(班固)의 『漢書』 예문지의 기록을 들 수 있다.

송대(宋代)의 구양수(歐陽修)는 「십익」 중의 <계사전>에 ‘何謂’, ‘子曰’ 혹은 ‘聖人設卦’와 같은 표현을 들어서, <계사전>은 공자의 저술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청대(清代) 최술(崔述)은 의심의 차원을 넘어서 경전의 문장 등을 들어서 「십익」이 공자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를 변박(辨駁)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곽말약(郭沫若)은 『周易的構成時代』에서 복희(伏羲), 문왕(文王), 공자(孔子)의 이른바 ‘삼위일체설’을 부정하고, 복희를 전설적인 인물로 믿을 수 없

다고 하였고, 문왕은 64괘를 제작할 정도의 문화 수준이 높은 인물은 아니었다고 규정하였다.

이경지(李鏡池)는 「십익」의 형식 문제가 아니라, 『논어』에 나타난 사상과 「십익」에 보이는 사상이 다르다는 지적을 하면서, 과학적 검증 방법으로 「십익」이 공자의 저작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경지의 학문적 태도는 전목(錢穆)의 경우에도 유감없이 들어났는데, 전씨(錢氏)는 “이전의 사람들은 「십익」이 공자가 저작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10 가지 사항을 들어서 공자가 「십익」의 저작자가 아님을 증명하였다.

논자는 공자 「십익」 저작설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마천의 『史記』 공자세가와 반고의 『漢書』 예문지의 기록은 영성하며, 사마씨(司馬氏)는 결코 ‘作’이라고 표현한 일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반씨(班氏)의 표현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자료의 신빙성이 적다고 보았다. 또한 맹자가 공자의 『주역』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생전에 자사(子思)로부터 공자의 『역』에 관하여 들은 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논어』의 사상과 「십익」의 사상 차이는, 이 책들이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방증(傍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자가 「십익」의 저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은, 공자와 『주역』이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논어』 술이편의 “五十以學易” 어구(語句)는 공자와 『易』의 관련 문제에 있어서 대표적인 구절이다. 이 문장의 해석에 이견(異見)이 있으나, 최신자료 『帛書周易』 요편(要篇)의 기록을 보아도, 공자와 『주역』이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 투고일 : 2008. 3. 27.

● 심사완료일 : 2008. 5. 29.

● 주제어(keyword) : 『周易』(The Book of Changes), 「십익」(The Ten Wings), 孔子(Confucius), 司馬遷(Sima-qian), 班固(Ban-gu), 歐陽修(Ouyang-xiu), 崔述(Cui-shu), 郭沫若(Guo-moruo), 李鏡池(Li-jingchi), 錢穆(Qian-mu).